

李 '경제 드라이브' 40% 벽 뚫나...尹 지지율 하락에 단일화 촉각

국민의힘 내홍에도 이재명 지지율 30%대 머물러 윤·안 단일화 예의주시... '3자 구도' 재편 기대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40%를 안정적으로 넘지 못하면서 여론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빠진 지지율이 고스란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는 경향이 엮이면서 민주당의 촉각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 여부로도 향하고 있다.

더구나 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지지율이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선대위 관계자는 10일 "정권교체 지수가 여전히 높은 데다 여기에 안철수 바람까지 부는 분위기라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다"며 "우리로서는 일단 43% 정도를 넘고 여기에 스윙보터 5%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데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의 '극적 화해'로 내부 갈등이 조기 봉합되는 국면에 들어가면서 '안풍' (안철수 바람)이 찾아온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향후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윤 후보로 단일화가 되거나 아니면 대선 판세가 3자 구

도로 굳혀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으로 이어진다. 이 2가지 시나리오대로라면 현재 여론 지형상이 후보가 나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경선 때도 안철수의 경쟁력이 월등했는데 결국 오세훈으로 단일화되지 않았느냐"며 "대선은 진영 대 진영 싸움이다.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윤석열로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연말부터 비록 소폭이지만 지속해서 상승하는 점을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1월 말에는 40%대 돌파도 무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설 이전 지지율 40%대 안착'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후보 핵심 측근인 한 의원은 "후보가 박스권에 갇혔다는 것은 보수언론의 프레임이라고 계속 후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박스권이라는 표현이 후보에게 조금증을 줘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주로 넘어가면 안정적으로 40%대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11일 신년경제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유능한 경제대통령' 캠페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



발언하는 송영길 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두번째)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 경제 분야 만큼은 상대 후보들 대비 확실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고 설 연휴까지 '경제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자체 브랜드화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등 생활밀착형 정책·공약도 쏟아낼

생각이다. 이 후보는 11일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년 경제정책 발표, 국력 세계 5위(G5)·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 5천 시대' 등 이른바 '5·5·5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야당이 아무리 집안싸움을 해도 보수는 결집할 테고 윤 후보의 지지율도 결국은 어느 정도 복원될 것"이라며 "우리는 민생과 경제 비전을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우리 길만 가면 된다. 40%대도 금방 뚫릴 것"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대남' 중심 전략 바꾼 윤

1~2주내 성패 판가름 단일화 목전서 최대 변수로

전열을 정비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확장된 메시지와 정책을 쏟아내며 '이대남'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 흐름을 급반전시키기 위한 그의 파격 행보는 결국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세대 포워더'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지지율 반등으로 연결될지가 관건이다.

선대본부 안팎에서 '젠더' 문제와 관련해 이대남에 치우친 이슈 파이팅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

만, 윤 후보와 참모들은 일단 '직진' 태세다. '실합'에 가까운 전략 변경의 성패는 앞으로 1~2주 사이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

'매머드' 선대위를 조율할 실무형 선대본부로 탈바꿈하겠다는 윤 후보의 약속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 조직을 축소하고, 자리를 없애고, 결재라인을 단순화했다.

무엇보다 2030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청년 보좌역들이 10일 첫 선대본부 회의에서 마크를 잡고 발언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선대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많이 관여하다 보니 경제하고 빠른 행보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페이스북 글로 충격을 던진 메시지 팀의 개편도 눈에 띈다.

선대위 해산과 동시에 기존 핵심 멤버들이 빠지고, 2030이 팀 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6명이 메시지 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최고령자가 만 39세라고 한다.

여기에 금융투자 전문가인 김동조(51) 씨가 팀 장급으로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색다른 관점이 기대된다.

/연합뉴스

安,尹에 "병사월급 200만원? 부서관·장교 어떻게 할건가"

단일화 질문에 "생각 안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0일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부서관 월급이 얼마인지 아는가. 200만원이 안 된다"며 "부서관 월급, 장교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병월급 200만원 있

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꺼내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종합적으로 정부개편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 과학기술부총리제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것 말고도 현 시대에 맞게 정부조직 개편을 발표할 때 종합적으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이마트 장보기' 사진을 올린 것을 계

기로 촉발된 '별공' 논란에 대해서 "소이부담(笑而不答·웃을 뿐 답하지 않는다) 뜻"하겠다고 언급을 피해갔다.

안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 이번 대선과 서울시장 보선 때 상황이 어떻게 다르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는 완강하게 안 할 건가"라는 질문을 재차 받고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니깐 영무채처럼 같은 답변을 하는 걸 양해해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다자대결서 李 40.1%,尹 34.1%,安 11.1%

리얼미터 조사...安 4.5%p 상승 野단일후보 安 35.9%尹 32.5%

다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1%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40.1%로 1주일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는 5.1%포인트 떨어진 34.1%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0%포인트다.

이처럼 이 후보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 밖에서 윤 후보에 앞선 결과는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조사에서 처음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또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은 영향 등에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지지율은 상승하지 못하고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5%포인트 오른 11.1%를 기록했다.

이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 역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8%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 없음은 6.8%, 그 외 기타 후보는 3.0%.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단일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9%가 안철수 후보를 꼽았다. 윤석열 후보는 32.5%로 안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잘못한다'는 2.5%포인트 줄어든 53.6%. '잘한다'는 응답이 2.1%포인트 오른 42.5%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6%, 더불어민주당 33.6%, 국민의당 8.7%, 열린민주당 5.2%, 정의당 3.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 면접(20%), 유무선 자동응답(무선 75%, 유선 5%)이다.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p> <p>●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p> <p>● 월수익 750만</p> <p>● 년수익 9000만</p> <p>●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p>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